

기도·공부·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봉은사



◁강남지역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역삼청소년수련관.

봉은사,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도량이 새롭게 정비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봉은사 사부대중은 도량을 청정하게 가꾸며 삼보정재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봉은문화 센터가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8년간의 숙원불사였던 문화센터문제는 봉은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완전 타결되었고, 예산액 220억과 예상 이자 손실 1000억 등 1,2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부전 불사도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명부전은 기와를 모두 올려 뼈대를 완성하고 벽체와 마루만 완성하면 12평에서 40.5평의 전각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특히 봉은사를 수호하는 사천왕이 서울시 지방문화재 160호로 지정돼 사천왕 보존각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대웅전 단장을 새롭게 하였으며, 사하촌을 정리하는 등 도량을 정비했습니다. 내년엔 큰 불사로 「민족문화 체험관」건립과 사천왕 보존각 건립 그리고 범종각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금년도 봉은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15%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현재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는 놀랄만한 발전입니다.

이는 재정 전산화로써 재무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이 더욱 담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단에서 제정한 재정운용의 방식을 오차 없이 따르고 있으며 불기 2548년을 대비하여 봉은사는 초하루 5천 세대 통합 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기도와 정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초에는 정초 7일산림기도와 정월대보름 방생 후 법당에 열불 소리가 시민선원에는 수행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조실 석주 큰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을 초빙하여 일주일간 그분들의 평생 수행하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인연불회를 열면서 만인연불회가 더욱 성숙하도록 선지식을 모셔 불자들이 열불하는 관음, 문수, 미륵, 아미타 신앙의 참내용을 배웠으며, 이 힘을 밑거름으로 만인연불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기도정진이 이어지기 위해 동안거에는 수행의 생활화와 계율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팔재계 수계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4. 신도교육을 통한 신도회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봉은사에는 포교팀이 있습니다. 이는 현 주지 스님이 90년 봉은사 포교실장 소임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주간반이 40기, 야간반이 21기를 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1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경전강좌 역시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교육으로 배출된 불자만 1만 명이 넘습니다.

신도 조직화 사업도 완성되어갑니다. 1990년 서울 대흥수로 잠실별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봉은사 신도들이 수재민 구호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이는 1926년 을축년 대홍수 때에도 700명의 수재민을 구제하여 당시 나정호 주지

을 받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돕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근무하는 종무원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새로운 틀로써 더욱 내실을 기하며 진행될 것입니다.

6.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불교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연초 임시적으로 마련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복지단체 지원, 사회복지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 강남구청 복지과와 연계하여 주민 애로사항 풀어주기, 자원봉사단 활동 등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구와 동별로 위원을 두었으며 봉은사 신도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이 없어서 못하는 주변 주민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00년 인수한 강북 장애인 복지관은 봉은사의 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올해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지난해에는 서울시 최우수 장애인 복지 기관으로 서울시장상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서울시와 전국에서 최고의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정받고 보건 복지부장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보호 사례 연구집을 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수탁 받았습니다. 그동안 파라마타에서 수탁 시도하였던 사업을 봉은사에서는 단 한번에 성공시켜 (사)파라마타의 위상을 높이고 강남구 내에서 불교와 봉은사의 위상도 한껏 높일 수 있었습니다.

7. 신행단체를 육성하고 불교단체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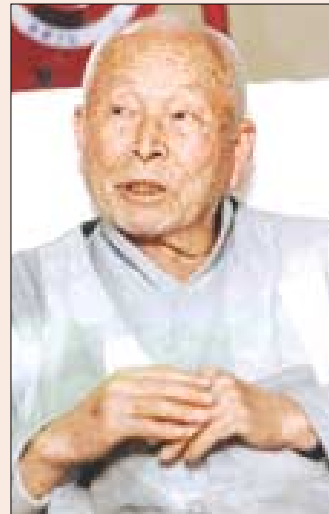
봉은사에는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자기가 원하는 단체에 들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이 불교학교, 파라마타(중, 고등부) 청소년 법회, 청년회, 직장인을 위한 야간법회, 일요가족법회, 신도회 법회, 구별법회, 기별 동문 법회,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신도회, 대불청을 비롯한,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파라마타, 대학생불교연합회, 재가연대, 등 모든 불교단체와 대장경 연구소, 가산 불교 문화원 등 불교 전문 연구소에 매월 2천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가협, 나눔의집, 소책새마을 등과 중앙승가대학, 실상사 등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에 공양미를 보시하고 있습니다.



◁봉은사 조실 석주스님 휘호.



◁석주스님

소나무·서리같이 지조지키고 사람 대할땐 마음 활짝 열라

석주조실스님 휘호

내가 붓글씨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것은 군법당을 짓는다고 나더러 붓글씨를 써 달래. 그래서 써 주었지, 그것이 무척 많아. 붓글씨를 누구한테 배운적은 없어. 혼자 시간 날 때마다 쓰면서 익혔어

이 글은 내가 평소 좋아하시는 글귀인데 유학자들도 이 뜻을 설

명해주면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좋아하고 갖고 싶어 했어

이 글귀의 뜻은 '소나무와 서리같이 지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는 물속에 달이 환히 비추듯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하라'라는 뜻이야

석주 스님 교계신문 기자와 인터뷰 중에서

부처님 혜명(慧明)을 도심속에서

원혜 주지스님, 불기 2548년을 앞두고

불기2547년을 정리하고 2548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금년 한해 봉은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의욕 넘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며 이 신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기 2548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봉은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자들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현대 I-PARK 문제가 1년 동안 봉은사와 불자들을 괴롭혔으며, 종회특위의 조사가 계속되어 종단의 여러 어른들을 격정스럽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봉은사는 인권의 시련을 감내하며 정진의 재력으로 삼았습니다. 불자들에게는 더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열불회를 만들었고 사찰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 하는 도량"이라는 표어 아래 전 사부대중이 하나가 되어 도량불사, 기도 정진,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부처님의 혜명이 이 땅에 영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금년에는 봉은사에 만인연불회를 열었습니다. 종단 원로위원 스님을 모셔 고승초청법회도 열었습니다. 또한 만인연불회 기간 선지식들을 모셔 열불과 기도에 대한 법문도 들었습니다. 무료로 보살계 수

계식도 봉행했으며, '마음에 부처를... 봉은사에서 원력을...'이라는 주제로 봉축행사와 백중 '생명해방의 대축제'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11월 동안거가 입재할 때는 수행의 생활화를 위해 팔관재계 수계법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봉은사에서 수행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대학도 주간 40기 야간 21기가 개강했으며 노인대학도 14년째 이어오고 신도들의 취미 생활인 문화강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부전 불사도 완성되어갑니다. 대웅전도 단장을 지어 삼존불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사천왕 보존각도 단장하고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지방문화재 160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봉은사가 이처럼 끊임없이 도량을 정비하고, 기도 정진하며, 신도들을 위한 교육이 계속되는 것은 이 터전에 부처님의 법이 항상 구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봉은사는 서울에 새로운 중심 강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사방이 높은 빌딩 숲으로 쌓여가지만 봉은사는 아직도 부처님의 법음과 법향이 넘쳐흐릅니다. 불기 2548년 미래 비전을 새롭게 모아 그 법향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서원합니다.

불기 2547년 11월 심경당에서 설담 원혜 합장



◁원혜스님

보람도 아쉬움도 많았던 한해

신도회장 인사



◁안승기신도회장

벌써 한해를 정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 내

년도를 이끌어갈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차년도 신도회장 임후보 공고가 붙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도들을 힘있게 함께 했던 일은 현대 I-PARK 문제였을 것입니다. 불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힘들었고, 항의 시위에 동참하고 50일 이상 계속된 1인 시위에 동참한 불자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속에서도 합심하여 부처

님 오신날 행사를 여법하게 봉행했으며, 백중, 10월 불교문화축제도 잘 마쳤습니다. 봉은사의 모든 법회 행사 불사에 봉은사 신도들의 손길과 시주와 회주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신도회장을 믿고 따라주었던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의 집행부를 위하여 차분히 인신계 준비를 할 것이며 나머지 봉사와 I-PARK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생한 제 7기 봉은사 신도회 집행부 여러 임원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주신 주지 스님 이하 사중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